

## 〈발표1〉

## 정보화 교육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순돌, 박지영(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I. 연구 목적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화 기기는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 인터넷 사용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을 비롯한 정보를 수용하기 어려운 계층의 정보 소외 문제를 야기 시켰다. 현대사회의 노인들의 경우 은퇴로 인해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세대 간 단절로 인한 고립감, 상실감 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오는 소외감이 가중되면서 노인은 심리사회적 적응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 고령화 사회 도래 등으로 노인의 정보 소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노인 정보화 교육이 확대되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 교육이 실제 어떠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은 강북, 도봉, 용인 지역의 경로당에서 이루어진 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노인 100명이며, 같은 지역의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 100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측정 도구

컴퓨터와 정보이용에 대한 소외감은 컴퓨터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문항과 정보이용에서의 소외감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및 대인관계 인식은 총 6문항으로 가족관계 변화 3문항, 친구관계 변화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소속감은 Lee와 Robbins(1995)가 그들의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소속감과 자신감 척도' 중 소속감 부분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총 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세대간 교류 정도는 Stremmel, Travis, & Kelly-Harrison (1996)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세대 간 교류 태도 척도' 34문항 중 '노인과 손자세대 간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 3. 결과분석

조사 결과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카이검정,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생의 성별은 남성이 30%, 여성이 70%를 차지하였다. 비교육생은 남성이 21명으로 21%, 여성이 79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교육생의 평균이 72.18세, 비교육생이 73.03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학력의 경우 교육생은 고등학교졸업 34%, 초등학교졸업 29%, 중학교 졸업이 19%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도 11%를 차지하였다. 비교육생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36%, 무학 26%, 중학교 졸업 23%, 고등학교 졸업이 7%를 차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컴퓨터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정경희 외, 2005; 홍명신, 2003; Pew Internet & American Life, 2002).

가족형태에서는 50% 이상의 교육생 노인들이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손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21%로 나타났다. 비교육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형태로 볼 때 노인과 손자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교육생의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30~50만원'이 24%, '100만원이상'과 '50~70만원'이 각 14%, '70~100만원'이 8% 순이었다. 비교육생의 경우에도 30만원 미만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실제소득정도가 컴퓨터 교육 참여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교육생이 3.38로 비교육생 3.11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도 교육생이 3.71, 비교육생이 3.14로 교육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생과 비교육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같은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으로 참여한 노인의 학력이 다소 높고, 경제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비교육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 2. 정보화 교육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가족 및 대인 관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변화는 교육생이 3.81, 비교육생이 2.82로 비교육생에 비해 교육생에게서 관계의 변화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t=9.82, p<.001$ ). 친구관계의 변화 역시 교육생이 3.96인 반면, 비교육생이 2.91로 교육생의 친구관계에서도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9.49, p<.001$ ). 컴퓨터와 정보에 대한 소외감에 있어서는 교육생이 3.96, 비교육생이 2.51로 나타나 교육생이 정보이용에 대해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16.014, p<.001$ ). 즉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는 노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됨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소속감의 경우 교육생이 4.07, 비교육생이 3.67로 교육생의 사회적 소속감이 비교육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830, p<.001$ ). 넷째, 세대 간 교류정도는 교육생이 4.09, 비교육생의 경우 3.77로 교육생의 세대 간 교류정도가 비교육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523, p<.001$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노인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측면

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노인 정보화 교육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효과성

변수	교육생	비교육생	t-test
가족 및 대인 관계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3.81(.68)	2.82(.74)	9.83***
친구관계의 변화	3.96(.74)	2.91(.81)	9.49***
전체	3.88(.65)	2.86(.71)	10.542***
정보 이용에 대한 소외감	3.96(.615)	2.51(.668)	16.014***
사회적 소속감	4.07(.69)	3.67(.77)	3.830***
세대 간 교류	4.09(.62)	3.77(.65)	3.523**

\*p<.05, \*\*p<.01, \*\*\*p<.001

#### IV. 결론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을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보화 교육의 참여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소외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소속감 측면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노인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 시키며 세상과 더 연계되어 있고 덜 소외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 친구들과의 접촉은 물론 새로운 친구 사귀기나 다른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 가는 집단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보화 교육은 또한 세대 간의 교류를 증가시켰다. 손자녀 세대에게 익숙한 매체인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관심사를 갖게 되어 의사소통의 기회와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제까지 노인의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 여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사회적 측면의 효과성을 정리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정보화 교육이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